

닛신보의 “논케어”셔츠 - 연간 100만매 판매

닛신보가 이토추상사 및 홍콩의 탈어패럴사(Tal Apparel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면 100%의 노아이론(no iron, no pressing)셔츠인 “논케어(Noncare)”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추동절에 표백제품은 매당 6,900엔, 선염(先染)제품은 7,900엔으로 좀 비싼 값으로 10만매를 판매하였다. 이 시절까지는 셔츠업계에서는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초야(Choya)”나 “산키(山喜)”가 업계를 앞서 달리는 모양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새로운 어패럴업자가 늘어났는데도, 2004년도에는 드레스셔츠만으로도 연간 100만장 판매를 계획할 수 있는 정도였다. “내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할 여성용 셔츠나 블라우스도 모두 합산하면 판매량은 100만매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논케어”는 5번 세탁하여 옷걸이에 걸어 말리면 거의 구김살이 없어지는 정도로 W & W(wash & wear性) 3.5급 이상인 면 100% 천으로 만들고 있다. 닛신보의 “미아이”공장에서 저온에서의 액체암모니아처리(液體ammonia處理)와 새로 개발된 수지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논케어”천을 상품화하였다. 이 천을 탈어패럴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테이프봉제(tape縫製)기술로, 봉사의 장력(tension)이나 천의 수축정도에 따라 봉제한 부분에서 주름이 생기는 퍼커링(puckering)을 억제하면서 제품화한 것이 “논케어”이다.

테이프봉제를 위하여는 테이프 삽입기(挿入機)와 같은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논케어”셔츠를 봉제할 수 있는 공장은 한정되어 있다.

“논케어” 봉제설비는 현재 중국에 5개 라인, 타이에 1개 라인, 일본에 1개 라인으로 합계 7개 라인이 있었는데, 2003년 초에 2개 라인이 추가되어 9개

라인으로 되었다. 본봉(本縫)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라인의 1일 생산량은 700
매 정도가 되며, 9개 라인 체제가 되면 “논케어”의 월생산량은 16만매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